



“쉬어가도 괜찮아”



KIA 타이거즈 투수 최고 참 양현종이 잠시 쉬어간다. KIA가 16일 키움 히어로즈와의 홈경기에 앞서 엔트리에 변화를 줬다. 전날 선발로 나와 5.2이닝 7실점의 패전 투수가 된 양현종과 두 번째 투수로 나와 1.1이닝 동안 4피안타와 2개의 폭투를 기록하며 2실점을 한 김기훈 등 두 명의 좌완 투수가 엔트리에서 말소됐다. KIA는 대신 사이드암 박준표와 우완 김재열을 등록했다. 김중국 감독은 “양현종이 한 턱 쉬고 다음 주 주말 선발로 나설 예정이다”며 양현종의 엔트리 말소

KIA, 양현종 엔트리 말소...한 턱 쉬고 다음 주 주말 선발 등판 김중국 감독 “쉬면서 마음 추스리고 회복하면 좋은 투구 할 것”

소식을 전했다. 양현종이 시즌 중반 엔트리에서 말소된 것은 2013년 이후 처음이다. 이 시즌에는 부상으로 엔트리에서 제외됐다. 양현종은 지난 7월 6일 SSG전 승리 이후 최근 4경기에서 승 없이 3패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8일에는 2회까지 8실점(6자책점)을 하면서 초반 난타를 당했지만 비로 경기가 취소되면서 패배를 지을 수 있었다. 그리고 1주일 만에 선발로 나선 경기에서도 양

현종은 김혜성에게 만루포를 맞는 등 5.2이닝 7실점을 기록하면서 결국 재정비 시간을 갖게 됐다. 올 시즌 결과도 결과지만 내용도 만족스럽지 못하다. 양현종은 올 시즌 19경기에 나와 4.39의 평균자책점으로 5승 7패를 기록하고 있다. 퀄리티스타트는 6번, 최근 5경기에서 6이닝을 마무리한 경기가 없었다. 피안타율이 0.301에 이르는 등 달 던진다가 난타를 당하는 모습이다. 이닝당 출루 허용률도 1.55를

기록하면서 쉽지 않은 아닝들이 이어지고 있다. 위안은 노게임이 선언됐던 8일 LG전보다는 힘이 붙었다는 점이다. 김중국 감독은 “앞선 등판보다 수직 무브먼트도 좋아졌고, 볼 끌고 힘이 더 있었다. 커맨드도 안정되게 가져갔다”고 언급했다. 이어 “홀런은 상대 타자 김혜성이 잘 치기도 했지만 코스가 안 좋아서 맞았다고 생각한다”며 “(연달아 대량실점을 하는) 이런 부분이 많이 없었으면 좋겠다. 심리적으로 위축된 부분이 있을 것이다. 한 턱 쉬면서 심적으로 잘 추스리고 자기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훈련을 하면서 좋은 투구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언급했다. 7월 13일 전반기 마지막 등판을 소화한 뒤 올스

타전에 출전했다. 이런 부분을 고려해 KIA는 양현종에게 넉넉하게 회복 시간을 준 뒤 7월 27일 NC전에서 후반기 첫 등판을 소화하게 했다. 이후 5일을 쉬고 삼성전에 나섰고, 8일에는 2회말 비가 내리면서 일찍 등판을 마무리했다. 그리고 1주일만인 지난 15일 다시 마운드에 올랐다. 체력적으로는 부담이 없는 상황이었다면 만큼 심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춰 답을 찾을 전망이다. 대체 선발은 다양한 경우의 수를 두고 답을 찾을 예정이다. 김중국 감독은 “콜업 선수 중에서 선발로 나설지, 볼펜 데어로 할지, 새로운 선수를 투입할지 등은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설명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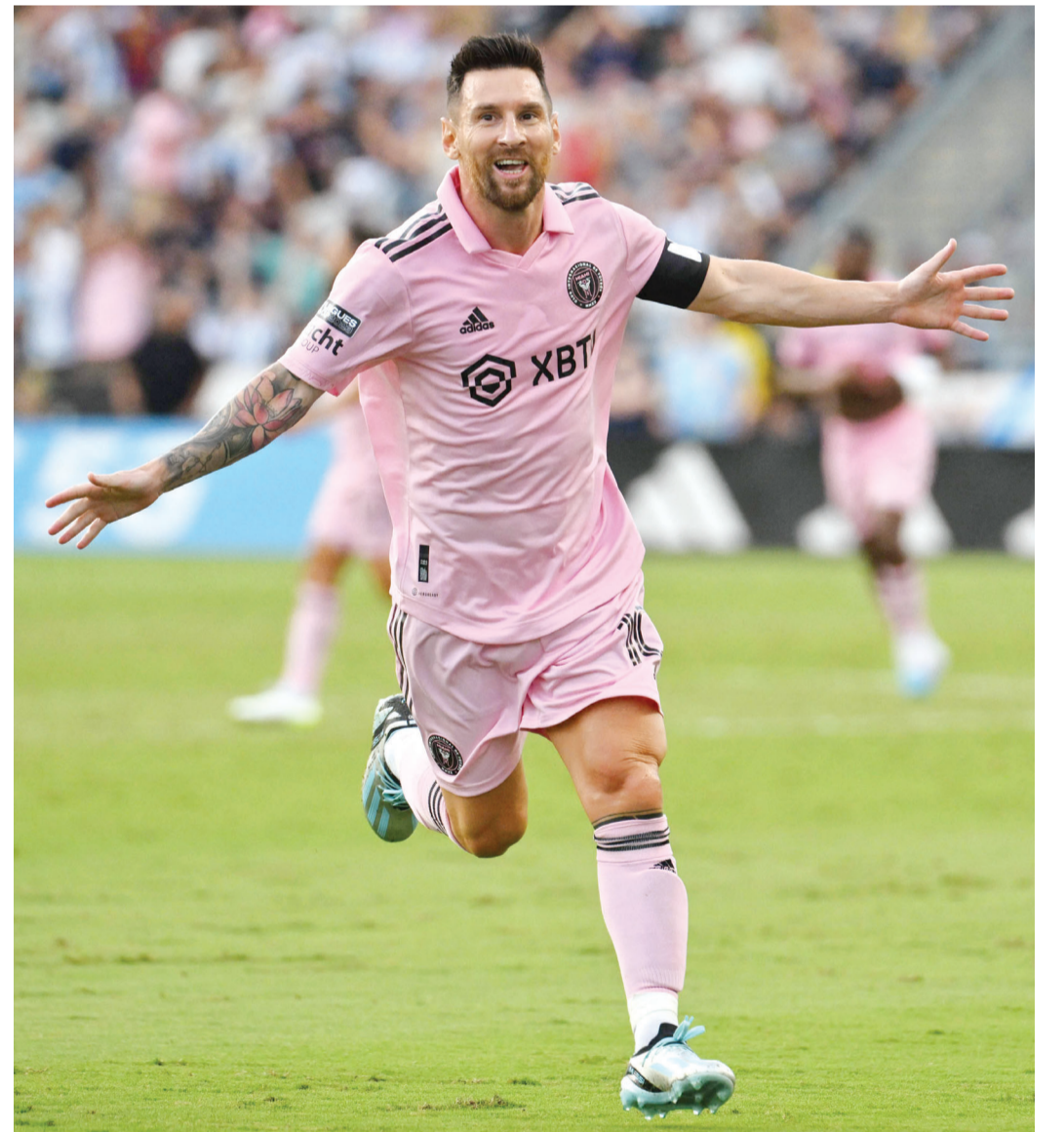
질롱 코리아, 호주리그서 퇴출...참가 준비 KIA '비상'

심재학 단장 “대책 마련하겠다”

질롱 코리아의 호주리그 참가가 불발됐다. 리그 참가를 준비했던 KIA 타이거즈에 비상이 걸렸다. 호주프로야구리그(ABL)는 15일 홈페이지를 통해 “질롱 코리아가 2023-2024시즌에 참가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소식을 전했다. 최근 오클랜드 투아타라 구단이 ABL 불참을 선언하면서 기존 8개 짝수 구단 체제에서 7개 홀수 구단 체제가 되면서 질롱 코리아의 리그 참가에 문제가 생겼다. ABL이 6개 팀으로 운영하기로 하면서 질롱 코리아가 제외된 것이다.

유망주들을 대거 파견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던 KIA 입장에서는 ‘날벼락’ 같은 소식이 됐다. 지난 겨울 KIA 내야수 김석환-김규성과 좌완 최지민이 호주로 건너갔다. 김석환이 입파선염으로 중도 귀국했지만 우완 유지성과 이태규가 중도 합류해 질롱 코리아 선수로 뛰었다. 실전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한 선수들이 성장세를 보이면서 선수는 물론 구단 입장에서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다. 지난 성과를 바탕으로 KIA는 이번 리그에도 많은 선수를 질롱 코리아에 보내기로 계획하는 등 통 큰 투자를 준비했다. 하지만 리그 참가가 불발되면서 KIA가 급히 대책 마련에 나섰다. 심재학 단장의 발걸음도 분주해질 전망이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KIA는 2024시즌 스프링캠프 후보지로 호주를 보고 있다. 오는 25일 현지를 찾아 캠프지 점검에 나서는 심 단장은 호주리그 파견을 위해서도 현지 구단들과 접촉할 계획이다. 심 단장은 “선수들 기량 발전을 위해서는 경기를 뛰는 게 가장 좋다. 최대한 많은 선수를 질롱 코리아에 참가시키려고 준비했는데 계획이 틀어져서 대안을 찾고 있다. 미국 교육리그도 알아보고 있지만 코로나 이후 외국인 선수들의 참가가 불발됐고, 리그가 열리지 않기도 했었고 상황이 쉽지 않다”며 “호주리그에서 외국 선수들과 팀을 이뤄서 뛰는 방안 등도 고려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미국프로축구 메이저리그 사커(MLS) 인터 마이애미CF 리오넬 메시가 15일(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주 체스터 스바루 파크에서 열린 2023 리그스컵 준결승전에서 득점한 뒤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네이마르, PSG 이강인과 작별...사우디 알힐랄 이적

연봉 최대 2000억원 추정

프랑스 프로축구 파리 생제르맹(PSG)에서 뛰던 네이마르(브라질)가 사우디아라비아 프로축구 알힐랄 유니폼을 입었다. 알힐랄은 16일 “네이마르와 2년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자세한 계약 조건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유럽이나 미국 매체들은 이적료 9천만 유로(약 1315억원), 네이마르의 연봉은 1억 달러가 넘는 것으로 추정했다. AP통신은 네이마르의 연봉을 1억 달러, 영국 BBC는 1억5000만 유로로 예상했는데, 이는 한국 돈으로 1300억원에서 2000억원 사이에 해당한다. 이로써 사우디아라비아 프로축구 리그에는 올해 1월 크리스티아누 호날두(포르투갈)를 시작으로 카림 벤제마(프랑스), 사디오 마네(세네갈) 등에 이어 네이마르까지 몸담게 됐다. 네이마르는 알힐랄의 소셜 미디어를 통해 “나는 유럽에서 많은 것들을 이뤘고, 좋은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나는 항상 새로운 장소에서 도전하며 나 자신을 시험하기를 원했다”며 “스포츠 역사를 새롭게 쓰고 싶다. 사우디 리그에는 엄청난 에너지가 있고, 훌륭한 선수들이 많이 뛰고 있다”고 언급했다. 네이마르는 설명이 따로 필요 없는 브라질의 간판 선수다. 1992년생인 그는 브라질 클럽인 산투스에서 뛰



프랑스 프로축구 파리 생제르맹(PSG)에서 뛰던 네이마르(브라질)가 15일 프랑스 파리에서 사우디아라비아 프로축구 알힐랄과 계약한 뒤 새 유니폼을 입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가 2013년 FC바르셀로나(스페인)에 입단해 유럽에 진출했으며 2017년 PSG로 이적했다. PSG로 옮길 때 이적료는 2억2200만 유로로 역대 최고

규모였다. 네이마르는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경기에서만 68골, 프랑스 리그1에서는 82골을 터뜨렸으며 브라질 국가대표로도 A매치 124경기에서 77골을 넣어 ‘축구 황제’ 펠레와 함께 브라질 A매치 최다골 기록을 가진 선수다. 네이마르는 이달 초 부산에서 열린 전북 현대와 쿠방플레이 시리즈 경기에서 이강인과 함께 뛰며 골까지 넣었는데 불과 2주 만에 새 유니폼을 입었다. 지난 시즌까지 리오넬 메시(아르헨티나), 네이마르, 킬리안 음바페(프랑스)가 함께 뛰는 위용을 과시했던 PSG는 메시가 미국프로축구 메이저리그 사커(MLS) 인터 마이애미CF로 떠났고, 네이마르까지 이날 이적을 확정하면서 전력 약화가 우려된다. 음바페 역시 계약이 1년 남은 가운데 구단의 계약 연장 제의를 거부, 2023-2024시즌 진로가 불투명했으나 14일 팀 훈련에 복귀해 이강인과 실전에서 호흡을 맞출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날 네이마르가 입단한 알힐랄은 사우디 리그에서 통산 18번이나 우승, 최다골 기록 중인 명문 구단이다. 알힐랄 다음으로는 호날두의 소속팀 알나스르와 알이티하드가 9번씩 정상에 올랐다. 알힐랄은 지난 시즌까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울버햄프턴에서 활약한 동료로 활약한 후방 네베스(포르투갈)도 올해 6월 이적료 약 784억원에 데려갔다. /연합뉴스

메시 6경기 연속골...마이애미 컵대회 결승행

‘축구의 신’ 리오넬 메시가 미국 무대 데뷔 후 6경기 연속골을 폭발하며 소속팀 인터 마이애미를 리그스컵 결승으로 인도했다. 마이애미는 16일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체스터의 스바루 파크에서 열린 2023 리그스컵 준결승전에서 홈 팀 필라델피아 유니언(미국)을 4-1로 완파했다. 마이애미가 1-0으로 앞서던 전반 20분 호세프 마르티네스의 패스를 받은 메시는 30여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기습적인 중거리 땅볼 슈팅을 날렸다. 슈팅은 마치 ‘레이저’ 밤처럼 쭉 뻗으며 골대 오른쪽 하단 구석에 꽂았다. 메시의 연속골 행진은 6경기째 이어졌다. 메시는 마이애미 데뷔전인 지난달 22일 리그스컵 조별리그 크루스 아슬(멕시코)과 경기에서 후

반 추가 시간 팀에 2-1 승리를 안기는 극적인 결승골을 넣은 것으로 이날까지 6경기에서 9골을 몰아쳤다. 메시는 리그스컵 득점 1위 굳히기에 들어갔다. 2위인 붕고롤레 롱가네(미네소타)는 팀이 이미 탈락한 상태. 토너먼트에 생존한 팀에서 홈 팀 필라델피아 유니언(미국)을 4-1로 완파했다. 메시와 격차가 크다. 메시가 풀타임을 소화한 가운데 마이애미는 전반 48분 호르디 알바, 39분 다비드 루이스의 추가골로 여유 있게 승리했다. 필라델피아는 후반 28분 알레한드로 베도야의 골로 한 점을 만회하는 데 그쳤다. 마이애미는 몬테레이(멕시코)-내슈빌SC(미국) 경기 승자와 현지시간 19일 결승전을 치른다. /연합뉴스